

김치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및 기호도 조사

한재숙 · 최영희*
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

본 연구는 우리의 김치를 국제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품질을 개발하기 위한 현지조사로서 일본인 남녀, 세대별, 지역별 김치에 대한 인식, 기호도 그리고 이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몇가지 결과를 얻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1. 조사대상은 남자는 224명, 여자는 381명으로 전체 605명이고 10대가 237명, 20대가 284명, 30대 이상이 84명 이었으며 조사지역은 도쿄, 오사카, 교토, 고오베였다. 조사대상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은 약 10%였다.

2. 조사대상자의 약 93%는 김치의 국적을 한국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본 또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약 7%에 이르렀다. 약 97%가 김치를 먹어 본 경험이 있었고 그 중 80% 정도는 김치를 좋아하였으며 가장 좋아하는 김치종류는 배추김치, 가장 좋아하는 배추의 부위는 배추의 흰부분이었고 가장 맛있는 시기는 담근지 1~2일 또는 3~4일 지났을 때라고 응답하였다.

3. 김치의 식품영양학적 지식에 대한 5점 Likert 조사 결과, 남자는 평균 3.65, 여자는 3.56으로 나타났다. 항목별로는 '김치는 스테미너 식품이다'에 남자가 4.17, 여자가 4.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'김치는 저장성이 좋은 식품이다'에 남자가 3.93, 여자가 3.99였다. '김치는 감칠 맛이 나는 식품이다'에는 남자가 3.95, 여자가 3.64로 나타나 $P < .001$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.

4. 김치의 이용실태는 시판김치를 구입해 먹는 경우가 82%로 가장 많았고, 구입하는 김치의 종류는 일본김치가 약 47%, 일본에서 제조한 한국김치가 24%, 한국김치는 14% 정도였다. 1회 구입량은 250g 이하가 70% 정도를 차지하였고 구입기준은 '구입한 경험'이 가장 높았으며, 신김치의 처리방법은 '버린다'고 응답한 경우가 37%였다.

5. 김치의 부재료에 대한 조사에서 좋아하는 부재료는 남녀 모두 고추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무와 마늘이었으며 싫어하는 부재료는 젓갈이 가장 많았다.

6. 김치를 이용한 음식에 대한 인식 및 시식율에서 남자는 김치라면, 김치볶음밥, 김치찌개를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시식경험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자의 경우는 김치라면, 김치찌개, 김치볶음밥 순으로 알고 있고 시식경험은 김치볶음밥, 김치찌개, 김치라면의 순이었다.

7. 시판김치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'맛과 숙성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면'하는 사항이 27%로 가장 높았고 '가격이 좀 더 싸으면'이 26%, '냄새를 없앴으면'이 23.5%였다.